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리는 하나, 허공도 하나

듯하다 ③

그러나 자기의 망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망심 이 건 전부 헛것입니다. 그럼 내 폐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그 청정심, 이거 믿을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외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와 내가 금시 말하는 믿는 것과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 듯 속에서 노는 거예요. 듯 속에서, 좋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 참말로 생사문제를 근본으로 파헤쳐서 나가는 데는 말이지 나 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허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지 영동한 것, 자기는 그만 포기해 놓고 말이지 가장 믿어야 될 자기는 제쳐두고 말이지, 자기의 성품, 자기 부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미, 자기의 소식 이런 까맣게 망각해 놓고 말이지 다른 걸 갖다 믿으려 하니 틀림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만큼 알았으니 어떻게 말이지, 듯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이나 서울에서 다 유행된 지 오래입니다. 절대성 상대성 유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듯 이 말이 유행될 겁니다. 전부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사무를 본다 면 사무를 보는 듯입니다.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어느 것 하나 듯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 하기 때문에 일체 쳐서 머물지 마시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한 마디만 가지고도 공리를 하실 수 있다면 뜻을 굴리기를 누가 굴리느냐. 내가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리는 그것이 진짜 그것이 여러분이거든.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파악이 되신다면 설법 들어서 뭐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뜻을 누가 굴리느냐. 가는 듯 오는 듯 웃는 듯 잠을 자는 듯 밥을 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

를 하는 듯 누가 굴리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려 봤든 찾아내지 못해요. 모습이 없으니 허공 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러분이 파악을 한다면 설법 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 듯 사는 듯, 죽는 듯이예요. 죽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도 수억 천만 번 항하수 모래수의 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생에는 어떻게 됐느냐. 경계에 닿질리는 그 마음 씩씩이를 했기 때문에 전생에 가졌던 안이비철신의, 이것이 몽개어지면서 의식이 몽개졌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아, 전생에 무슨 몸을 가졌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현상은 전부 덧임음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가면

내 행동도 덧임을 깨달아

누리 · 허공은 하나

허공에서 술한 차별 현상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

차별 현상 일어나는 것 당면

왜 그러느냐. 눈 귀 코 혀 몸, 이것. 이것. 이것이 경계하고, 눈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 전부 이 심부름만 했거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것이 전부 몽개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어. 눈을 떠도 잘 안 보여.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려. 평상시에 잘 들리는데, 그 기관이 완전히 마비 돼서 활동을 제지해 놓으니 거기서 일어나는 알음알이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 알음알이로 알았던 내 전생사가 완전히 녹아나 버리는 거라. 그러니 모르는 거 아니예요?

여러분이 청정본심을 전생에 그대로 썼더라면 말이죠. 알음알이가 아니라 이거 다 몽개어진다 하더라도 청정본심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생에 이렇구나 과거에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 아닙니까?

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루어진 사실 태양이니 지구니 전부 뜻이란 말이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 뜻이야. 듯. 우리말로. 전부 뜻인데 이 뜻에 여러분들 들어있지 마세요. 뜻을 굴리진 굴리 세요. 여러분들이 굴리진 굴려야 돼. 그 래야 재미가 있지 않아요? 사는 듯, 어디 놀러 가는 듯, 친구를 만나는 듯.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나뉜 것은 이 말 한 마디 들으려고 몸을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 설법이란 것은 여러분의 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뜻을 여러분이 단 심 원으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을 것이고 천 원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억 원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슬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에 실감이 가. 아, 이거 참 온 누리가 그렇구나. 차별현상 전부 뜻이로구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이것도 뜻이로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간다면...

이 공부하는 데는 이겁니다. 깨지겠다 뭐하겠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미했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실로 미했다라면 미한 듯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깨었다면 깨친 듯 한 겁니다. 그 까짓 거 미한 듯 깨친 듯 그 까짓 거 뜻에 들어있을 필요가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만 그대로예요. 그만 그대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달려드는 것이 그대로 입지 성불하는 소식입니다. 참말로 이 공부는 참 이상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이 소리하고(탁자 치는 소리) 손바닥 치는 소리하고 들으니까? 하십니까? 물론 이진 쇠고 이진 손바닥이니까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리는 소리 아니냐? 만약 우리가 이걸 쓴다 하면 소리 성자 하나 밖에 쓸 거 더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 다 하고 그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 따로 없는 거. 그렇게 써놔? 이것은 어느 것이 앞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있을 손가?

그러하니 이걸 내가 이 정도만 말합니다. 누리는 하나라 말이야. 허공은 하나라 말이야. 허공은 하나니. 물론 하나인 허공에서 술한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라. 차별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아미타불 이름 열 번 되뇌이면...

8-1 십념(十念)

대사회의 모든 중생을 위하고, 전인류를 위한 뿐만 아니라, 썩지락거리는 목숨 붙은 모든 생물에 대하여도 사랑과 자애를 베풀어야 된다. 이와같은 사랑을 베풀은 덕(恩德)있는 이에게 우리가 귀의 해야 되고 그를 경순(敬順)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온통 바쳐 그를 받들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여섯자를 뇌이는 데는 칭념(稱念)과 칭명(稱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칭명은 아미타불을 일컬어 생각한다는 것, 칭명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컫는 것으로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일컬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내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된다. 삼밀가지(三密加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몸과 입과 의식작용이 음성으로 통일되는 것인즉 나무아미타불 역시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명호를 부르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아미타불도 아이가 엄마를 불러 소리를 질러야 비로소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고 젖을 주며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과 같다. 죄악이 많은 우리로서는 늘상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명호를 불러야만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각 기관마다 구호를 내걸고 뇌이고 있어 이것이 즉 캐치프레이즈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매우 요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무아미타불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은(報恩)한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정녕과 결초 보은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늘상 임버릇처럼 뇌이는 사람과 그런 것 아랑곳하다는 투로 망각한 사람과는 벌써 하는 식이 판연히 다른 것이다.

인간은 허약한 것이다. 빠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라고 하였는데 어떤 면으로는 갈대 보다도 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다. 꼭이나 허망된 것. 그것이 생명일지도 알 수 없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아침 인사를 한다. 하룻밤 사이에 혹은 무슨 생명이 변동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의 발로가 이런 인사말을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서는 생명에 대한 허망의 뜻이 짙게 풍긴다. 인간의 생명이란 실상 허망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지성이

움직이는 날에는 기어코 천지가 다 감동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생명 자체에 있지 않고, 지성을 다 하여 믿음직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성실의 미덕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이 된다.

생명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 한 분이 전 인류와 무릇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크게 걱정을 하고 이들을 건지겠다는 커다란 목적으로 대비원(大悲願)을 세우셨다. 그는 아미타불이 인행(因行)한 때의 수행자(修行者)였던 법장(法藏)이라는 분이다. 만일 중생이 내 이름 즉 아미타불을 불러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마지막 임종시에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준다면 나는 정녕 그를 내가 사는

데서 그런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 부르고 난 다음 우리는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이 무척 위대하다는 계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9. 본원계(本願偈)

其佛本願力 聞名欲往生 皆悉到彼國 自致不退轉 아미타불의 원력이 얼마나 위대하나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다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 극락 세계란 다시 말하거니와 아미타불이 대왕생(大往生)한 곳이며, 대 사회성을 깨친, 그리고 그 대 사회 의식을 실천하여 건설하는 세계를 이른다. 또 그러한 사람, 즉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쓰러져 구른다. 해도 퇴전(退轉)하지 않는다. 그릇된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퇴만심(怠慢心)이 생겨서 끝을 못 맺고 마는 것이 일쑤다.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컫는 불특심심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언뜻 무슨 생각이 나서 일을 벌여 놓고는 뒷감당을 못하여 망설이다가 일을 망쳐버린다. 이것이 다 퇴만심의 소치다. 발심이 사후도 못가서 식어지고 뒤로 물러나 게을러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라치면 그 공덕으로 하여 오직 한결같은 정진이 있을 뿐이지 결코 물러나는 일이라고 없다. 이를 불퇴전(不退轉) '아미타불' 라고 하는 것이다. 뒤로 물러나는 일 없이 근면 · 노력 · 정진이 있을 따름이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우리는 커다란 기원을 간직하고 오직 한 길로 실행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행하는 일이란 다름 아니라 이 행원례(行願禮)를 가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커다란 비원(悲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겸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태도로써 일상 생활에 임한 때 이를 예(禮)라고 표현하게 된다. 즉 예의라는 뜻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회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명호 부르면

자비와 사랑 받는다

감사한 마음을 내면

결초보은의 생각 품게 돼

전인류는 대자비에 포섭되고

어떠한 사람이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리라, 만일 내 이름을 열 번 불러 내 나라로 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결단코 성불을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대원력, 대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미타불의 대비원력(大悲願力)에 힘입어 무연(無緣)의 대비(大悲), 인연이 있건 없건 간에 전인류는 이 대자비에 포섭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 뇌인다고 십념(十念)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무슨 뜻으로 열 번으로 지정한 것이냐하는 의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심은 무량지의(無量之義)를 나타내어, 열을 열계곱 한다치면 무한대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되므로서, 이를 즉 무량(無量)을 뜻하는

삼단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예 하 은 파 원로원장 현 각 원로부원장 정 원

총무원장 : 혜 암 중앙총회의장 : 만 송 부의장 : 명 현 사무처장 : 현담
부 원 장 : 근 파 중앙총회의원 :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혜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현담 만법

총무부장 : 도 일 재무부장 : 묵 암 포교부장 : 법 광 규정부장 : 인 각 교 육 부 장 : 성 각 사 회 부 장 : 혜 원
부산교구 총무원장 : 유 초 경남동부교구 총무원장 : 법 우 경남서부교구 총무원장 : 만 법 중 부 교 구 총무원장 : 직무대행 도 혜

◆입증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입증 구비서류

- 본종 입증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증명사진 2장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각1장씩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50, 301호 전화 : 051)527-7733 / 5431 Fax : 051)527-5432

부 산 교 구 총무원 051)468-6790 휴대폰 : 010-4133-0333
경남동부교구 총무원 055)251-7542 휴대폰 : 010-9814-7542

경남서부교구 총무원 055)884-1017 휴대폰 : 010-9099-5859
중 부 교 구 총무원 031)671-0522 휴대폰 : 019-241-0702